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

유 해 민 · 전 재 훈*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요 약

K-pop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며 동시대의 청춘의 소리이자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 패션은 음악과 긴밀히 상호 작용하면서 글로벌 문화의 중심에 선 K-pop 아티스트의 창작 활동에 시각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타문화권의 유산을 도용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문화적 전유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K-pop이 다양한 문화권의 젊은 세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성찰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뉴스 기사와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에 대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뉴스 기사를 통한 사례분석에서는 문화적 전유의 대상과 방식을 분석했다. 첫째,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사례에서는 인종의 전형화와 희화화, 전통의 비맥락화와 환상 및 낭만화, 역사의 비맥락화와 환상 및 낭만화 그리고 종교의 환상 및 낭만화로 총 7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유형의 사례에서는 블랙피싱이나 블랙페이스를 통해 타인종을 모방하거나 희화화하고, 복식이나 헤어 관습을 무분별하게 차용하고 미적으로 소구하며, 역사적 사실과 다른 맥락에서 왜곡하고, 종교의 영적인 의미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대상으로 삼은 유튜브 영상 콘텐츠는 개념 및 사례 소개, 비판 및 의견 전달 그리고 리액션 콘텐츠의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 창작자의 견해를 종합한 결과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 사례는 해당 인종에 대한 선입견 초래, 인종차별 담론 형성, 전통에 대한 존중 결여 및 가치 절하, 역사적 사실 왜곡 및 식민주의 착취 재현 그리고 종교에 대한 모독이라는 위험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K-pop 패션과 문화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통해 비판적 시야를 제공했다. 또한, 문화적 전유를 방지할 수 있는 제언을 다문화 감수성 교육, 크리에이티브 개발 및 활용 그리고 문화 당사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제언하고 K-pop 산업 기여를 꾀했다.

주제어 : K-pop, K-pop 아티스트, K-pop 패션, 문화적 전유, 다문화주의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전재훈, kingkem2@snu.ac.kr

접수일: 2023년 7월 26일, 수정논문접수일: 2023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 2023년 10월 5일

I. 서론

K-pop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시아’ 스타일의 팝을 의미하는 새로운 공간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된다(Siriyuvasak & Shin, 2007).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곡을 올린 아티스트가 되었으며(Chung, 2022), 블랙핑크(Blackpink)는 K-pop 최초로 2023년 미국 최대의 음악 축제인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에서 간판 출연자를 의미하는 헤드라이너로 선정되었다(Chung, 2023). 이처럼 문화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K-pop이지만 『The Guardians』, 『The New York times』, 『중앙일보』 등 국내 외 언론사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문화적 전유(cultural appropriation)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K-pop 아티스트는 더 새롭고 창의적인 패션을 표현하기 위해 타문화를 차용하지만, 그 대상과 방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흑인 커뮤니티의 상징으로 여겨진 헤어스타일(Yang & Yoon, 2022), 미국 원주민 복장을 차용한 무대의상(Dazed digital, 2020), 인종차별의 논란이 있는 블랙 페이스(blackface) 분장(Resnikoff, 2017) 등 K-pop 내 문화적 전유는 빈번하고 부주의하게 일어나고 있다. K-pop 문화 속 젠더와 인종 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지속해온 Park(2023)은 『아시아 브리프』를 통해 그동안 K-pop이 타문화를 재해석하는 과정 중 표현과 재현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혼종성, 초국적성, 무국적성과 같이 긍정적으로 여겨졌던 특성이 과연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적 전유란 포스트 식민주의(post-colonialism)의 담론 속에서 제기된 것으로, 한 커뮤니티가 가진 문화를 이해나 존중 없이 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Meade et al., 2022). 관련 선행 연구로는 문화 변용 이론과 문화적 전유에 대하여 인류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Huber & Solorzano, 2015;

Liu et al., 2019; Ozer, 2013; Sam & Berry, 2010), K-pop의 문화적 전유에 있어 음악적 측면에 대한 연구(Gardner, 2019; Lee & Lee, 2021; Um, 2013), 패션 사례를 통한 문화적 전유의 대상, 형식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Kim & Park, 2021; Lee, 2019; Park & Chun, 2020; Yi & Yim, 2020;) 등이 있다. 이와 K-pop과 동시대의 아이돌 문화와 그 팬덤에 대한 다양한 연구(Lee, 2019; Park, 2023)에서는 문화적 전유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만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사례를 대상으로 논의와 제언에 도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사례를 분석하여, 동시대 문화 현상 속 내재한 위험을 문제 제기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이에 도달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전유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이론적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상과 방식의 유형을 도출한다. 셋째, 해당 문화 당사자의 의견이 담긴 유튜브 영상 콘텐츠 분석을 실시하여 유형별 위험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에 기반하여 문화적 전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논의된 결과는 다문화주의 시대의 문화 충돌 현상 연구에 기여한다는 점에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또한 문화적 전유를 방지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K-pop 산업에 제안하여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실무적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적 전유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문화적 전유의 개념

문화적 전유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케임브

리지 영어사전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문화의 어떤 것을 이해나 존중 없이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며,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지배 집단이나 사회가 관습, 실천, 아이디어 등을 몰지각적이고 부적절하게 채택하는 것’으로 서술한다(Kawamura & De Jong, 2022).

학술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에서 문화적 전유는 특정 문화를 모욕하고 왜곡하는 것을 넘어 그 문화에 대한 소유를 이전시키는 행위로 정의되며, 문화적 모욕(cultural offence)과 문화적 왜곡(cultural misrepresentation)과 다른 개념으로 다루어진다(Lenard & Balint, 2020). 문화적 모욕은 타인의 문화적 관습이나 신념을 공격하고 상처를 입히게 하는 범죄이며, 문화적 왜곡은 특정 문화에 대한 관행이나 신념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묘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지칭하지만, 문화의 소유권을 가져가지는 않는다(Lenard & Balint, 2020). 반면 문화적 전유는 문화를 도용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간주하고 문화적 절도로 불리기도 한다(Meade et al., 2022). 글로벌화된 도시에서 이민자와 토착 집단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고 동시에 서로의 문화에 참여하고 전유한다. 이러한 문화적 권력 구조에 의해 문화적 전유는 경계, 영토, 유산, 권력, 식민주의와 권리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Kawamura & De Jong, 2022).

Young(2010)은 문화적 전유를 주체 전유(subject appropriation), 대상 전유(object appropriation) 그리고 내용 전유(content appropriation), 세 가지로 나눈다. 주체 전유는 다른 문화권의 등장인물이나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을 지칭하고, 대상 전유는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파르테논 신전 대리석 조각군과 같은 물리적인 문화적 유물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내용 전유는 문화적 콘텐츠, 예를 들어 패션이나 음악 스타일 또는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인종의 메이크업이나 의상과 장신구 등 패션을 통한 문화적

전유는 내용 전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의 내용을 전유하는 경우 전통 의상과 같은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것을 통해 상징을 새롭게 실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Lenard & Balint, 2020). 즉, 주체 전유는 ‘이야기’라는 비물리적인 형태를 경유하기 때문에 내용 전유보다 직접적이지 못하며, 대상 전유는 문화재 착취의 관점에서는 비판받지만, 이 방식이 유물을 훔치는 것과 같이 매우 확실하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는다. 반면 내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 상징을 재현하는 것은 부드럽고 세련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 당사자와 창작자 간의 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Lenard & Balint, 2020). 본 연구는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내용 전유 사례를 통해 어떤 상징과 실천이 문화로 재현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에 집중했다.

2) 문화적 전유의 문제점

문화 속에 있는 차별에 대하여 통찰력을 제시한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은 식민지배자가 백인성(whiteness)을 신화화하고 열등의식을 심어 유색인종을 정신적으로 식민화한다고 주장하였고, 문화속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주의를 발견하여 포스트 식민주의 운동을 이끌었다(Ha, 2012). 포스트 식민주의의 흐름 속에 문화적 전유는 문화가 가진 의미가 재평가되면서 문제 제기되었다. Rogers(2006)는 사회 구조와 권력과 힘의 상호작용 따라 문화 교류에도 특정한 역학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문화적 전유가 발생하는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은 문화적 교류(cultural exchange), 문화적 초월(cultural transculturation), 문화적 지배(cultural dominance), 문화적 착취(cultural exploitation)의 네 가지 일반적인 형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첫째, 문화적 교류는 문화를 공유하는 두 집단이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일어나며 둘째, 문화적 초월은 두 문화 당사자가 융합되어 복합적인 새로운 문

화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셋째, 문화적 지배는 지배 집단이 소수 집단에 자신의 문화적 요소를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문화적 착취는 소수 문화의 소유권을 지배 집단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의된다(Roger, 2006). 문화적 착취는 지배 집단과 소수 집단 간에 문화로 나타나는 권력의 비대칭을 여실히 보여준다(Mosley & Biernat, 2021).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사회에서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뿌리를 가진 개인의 문화는 서로 교류하며 변화하지만, 항상 동등한 권력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수와 유색인종 집단은 문화적 자산과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화는 정체성을 나타내고 동시에 사회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의미화를 통한 실천’으로 기능하게 된다(Shin, 2016).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를 무지하게 도용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소수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되며, 이들에게 인종적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Huber & Solorzano, 2015). 즉, 지배 집단이 문화적 전유를 통해 소수 집단의 문화를 새로운 상품이나 미디어 콘텐츠로 생산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소수 집단에 대한 착취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상업화된 문화 상품은 소수 집단이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이나 실천한 노력을 묵살하고 이러한 착취는 역사 속 인종 착취에 대한 트라우마를 상기시킬 수 있다.

2. 패션과 문화적 전유

패션은 동시대의 문화가 시각화되며 그 정체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당 문화 안에 암시된 지형적, 역사적, 제도적 관습을 기반으로 표현된다(Jeong & Seo, 2013). Kawamura and De Jong(2022)은 패션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야기되는 문화적 전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는데, 패션에 있어서 문화적 전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를 참

신함(novelty)을 쫓는 패션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 1906년 출판된 『Fashion』에서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은 패션에서 지역성을 경시하고 이국적인 요소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 ‘배타적이며 새롭고 기이하며 눈에 띄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짐멜의 관점은 백인 유럽 중심의 지배자 관점으로 타문화를 소비재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짐멜은 지역성이나 이국적인 것을 소비재로 사용하는 것이 산업화 사회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가진다.

서구 패션은 동양 복식의 이국성을 사용하였고, 산업화 이후 시대인 20세기에는 이국성을 상품화했다. 2004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는 ‘오리엔탈리즘: 서양 드레스 속에서 나타나는 동양의 시각(Orientalism: Visions of the east in western dress)’의 전시가 선보여졌다. 전시된 작품에서는 18세기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동양의 이국성이 어떻게 서양의 시각으로 패션화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Koda & Martin, 2004). 19세기에 중국의 비단, 인도의 술, 일본의 기모노와 같은 물건은 세계 박람회 또는 식민 지배를 통해 서양으로 유입되었으며 인도의 사리와 도티(dhoti), 일본의 기모노, 그리고 중국의 청삼 등 동양 의상의 아이디어는 서양 의상의 일부로 해석되었다(Koda & Martin, 2004). 1951년 기모노의 영감을 받은 발렌시아가의 이브닝 가운(The Met, n.d.a)과 1960년대 마담 그레(Madame Grès)가 인도의 사리에서 영감을 받은 각테일 드레스(The Met, n.d.b)와 같이 산업화 시대 이후의 오리엔탈리즘 사례도 살펴볼 수 있었다. 전시의 큐레이터인 Koda and Martin(2004)은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의 시각으로부터 만들어진 동양’이라고 묘사하였고, 이는 ‘동양을 완벽히 타자화하고 서구의 우월과 구분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이처럼 패션사에서 오리엔탈리즘은 산업화 이전 시대에도 나타났으며, 디자이너는 동양의 실제 문화를 존중

한다기보다는 단지 이국적인 것을 새로움과 차별성을 위해 사용했다(Kawamura & De Jong, 2022).

그러나 1960년대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더불어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이 청년층이 성장하면서 1989년 ‘multiculturalism’이라는 단어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실리게 되며 본격적으로 다문화주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Shin, 2016).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인종적, 역사적 기반을 가진 민족이 어울려 살게 되면서 민족, 인종, 지역적인 것에 대해 출처를 밝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민족의 본질과 같은 문화가 산업의 소비재로 소구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의미화를 통한 실천’으로써 문화의 위계가 재배치된 다문화주의 사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디올(Dior)의 샹젤리제 거리 매장 앞에서 문화적 전유에 반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디올이 선보인 치마가 중국의 전통 의상인 마네퉁(馬面裙)의 구조와 조형과 일치하는데 이를 ‘디올 고유의 디자인’으로 표방했다는 것이다(Choi, 2022).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Maria Grazia Chiuri)는 자신의 딸인 레이첼 레지니(Rachele Regini)로부터 컬렉션에 타문화의 의상을 올리는 것은 문화적 전유라고 지적받아,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기존의 작업 방식에서 크게 변화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Kim, 2017). 치우리가 경험한 혼란은 Pozzo(2020)와 같은 연구자에게도 화두를 던졌는데, 그는 이제 패션 창작 과정에서도 영감과 전유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문화적 전유로 야기되는 문제가 정체성과 깊게 연관되었기 때문에 영감의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파란색 시크 터번(Sikh turban)을 런웨이에 세운 구찌(Gucci)는 종교적 신념을 위해 사용되는 본질을 무시하고 이를 패션 액세서리로 사용하여 문화적 전유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Ilchi, 2019), 이처럼 서구 패션 산업에서 타문화의 유산

을 관습적으로 재해석하는 사례는 문화 당사자에게 큰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타인종을 흉내 내는 행위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흑인을 의미하는 ‘black’과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가상의 인물을 사칭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인 ‘catfishing’의 합성어 ‘블랙피싱(blackfishing)’은 2018년 작가 워너 톰슨(Wanna Thompson)이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 아리아나 그란데(Ariana Grande), 그리고 인스타그램 모델과 인플루언서를 트위터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처음 사용되었다(Stevens, 2021). 블랙피싱은 유색 인종이 아닌 유명인이 블랙페이스와 메이크업, 흑인의 헤어스타일링을 통해 마치 그들이 흑인의 유산을 가지고 있거나 인종적으로 모호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Shennan, 2020). 대표적인 셀러브리티인 카다시안-제너(Kardashian-Jenner) 자매들은 태닝한 피부, 구릿빛 피부를 강조하는 화장, 가슴과 엉덩이의 볼륨을 강조하는 몸매 보정, 입술을 필러로 부풀려 블랙피싱을 자행하고, 흑인 여성의 미적 아름다움을 전유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Lang, 2021). 블랙피싱은 흑인들이 겪어온 인종적인 차별에 직면하지 않고 단지 외적으로 멋진 부분만 선택하기 때문에 대중적 비판을 받는다(Shennan, 2020).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문화적 전유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의류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패션 산업에서 문화적 전유의 문제점을 비판한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Lee(2019)는 패션 컬렉션과 패션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형화와 회화화, 탈맥락과 왜곡, 소비와 약탈의 방식적 측면으로 인해 비판적 맹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Yi and Yim(2020)은 패션 산업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를 통해 비합리적이고 야만적인 이미지, 여성적이며 수동적인 이미지, 그리고 환상적이고 낭만적 이미지가 재현된다고 비판하였다.

다음으로는 문화적 전유가 일어나는 이유를 도

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선행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Park and Chun(2020)은 패션에서의 문화적 전유에 대한 사례를 첫째 문화 가치의 본래 의미를 잃거나 대체하는 것, 둘째 상업화된 디자인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 셋째 불쾌하고 모욕적인 전유를 행하는 것의 세 가지 분류로 제시하며 패션 디자이너가 이를 방지하려면 디자인의 목적과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고 내부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정한 이익 분배를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im and Park(2021)은 패션에서 문화적 전유는 인종, 전통, 종교, 역사에 대하여 일어나고 이는 다양한 인종을 포용하고 민족과 지역성을 존중하며,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인정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기업이나 개인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제언에 머무르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존중, 다양성 포용 등의 방법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공정한 이익 분배라는 맥락도 기업의 이윤 추구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

3. K-pop과 문화적 전유

1) K-pop 음악과 문화적 전유

K-pop은 한국과 서유럽, 미국 음악의 복합체로서 특히 힙합과 알앤비 장르에 있어서는 재즈, 소울, 가스펠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Gardner, 2019). K-pop은 글로벌한 창작자들의 구성물로, 많은 히트곡들이 흑인 프로듀서에 의해 작사 및 작곡되고 있고 팬들 중 상당한 비율이 흑인이다(De Luna, 2020).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팬들은 인종에 대하여 더 민감하고 세계화된 이해를 기대하고 있지만(De Luna, 2020),

K-pop 아티스트의 음악과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Empire, 2022). 조지 메이슨 대학(George Mason University)의 이규탁 교수는 'K-pop 아티스트가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상호 존중이나 이해보다는 다른 문화를 단순히 모방하는 문화적 도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Yang & Yoon, 2022).

구독자 7만3400명을 보유한 유튜브 아데올라 애쉬(Adeola Ash)는 K-pop 문화 내 내재한 위험을 인종주의(racism), 문화적 전유, 피부색 주의(colorism), 다문화 감수성 부재(cultural insensitivity)로 제시했다. 아데올라는 EXID와 방탄소년단의 RM 사례를 언급하면서, '백인이 아시아 인종의 역양을 따라 하면 인종차별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면서 반대로 흑인의 역양을 따라 하는 것은 인종차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AdeolaAsh, 2020b).

K-pop 아티스트의 모든 문화 차용의 사례가 문화적 전유의 논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방탄소년단은 히트곡 'IDOL'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유래한 'Gqom'의 장르에서 영감을 받고 남아프리카의 춤인 과라 과라(Gwara Gwara)를 새롭게 해석하여 사용하였다고 출처를 밝혔다(Lee, 2019). 방탄소년단은 뮤직비디오에서 아프리카의 앙카라(Ankara) 무늬가 프린트된 수트를 입고 나오기도 하였는데 음악적 측면에서 해당 문화에 대한 깊은 학습과 이해를 바탕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콘텐츠는 전유의 논란을 야기하지 않고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받았다(Lee, 2019). 나아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Hybe)는 '흑인 음악이 음악적 정체성의 기반'이라고 언급하고, 미국 내 흑인 인권 운동인 Black Live Matter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유일한 그룹이기도 하였다(De Luna, 2020). 방탄소년단은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경제적 이익 분배를 통해 음악적 뿌리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 것으로, K-pop이 거대한 산업이며 하이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흑인 음악을 착취하지 않으며 문화 당사자들의 인권 신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실천을 보였다.

2) K-pop 패션과 문화적 전유

패션은 음악의 청각적 이미지를 뒷받침해주는 시각 정보를 전달하며(Strähle, 2018), K-pop 아티스트는 청각 정보인 음악과 함께 시각 정보인 안무, 무대, 의상, 메이크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복합적인 감각을 전달한다. 이렇게 구축된 K-pop 아티스트의 복합적 이미지는 기호로 나타난다. 음악과 패션은 필수불가결한 상호 관계를 가지며, 역사적으로 가수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때로는 정치적 메시지나 신념을 전달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는다(Strähle, 2018). K-pop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아이돌 중심 산업으로 변화했고 시각적, 물리적, 경험적 체계를 가진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콘셉트’라는 복합적으로 설계된 기호로 작동하게 된다(Lee, 2017). ‘콘셉트가 곧 음악이다’라고 주장한 민희진 프로듀서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아티스트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으로 평가된다(Lim, 2020). 예를 들어 청중은 뉴진스(NewJeans)의 음악과 함께 노스텔지어를 전달하는 패션과 시각 이미지, 안무 등을 통해 복합적 기호를 전달받는 것이다.

즉, K-pop 아티스트의 패션은 음악과 함께 정체성, 신념, 메시지와 내러티브를 시각 정보로 전달하는 문화적 구성물로 이해될 수 있다. K-pop 아티스트의 패션은 트렌디한 음악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고, 이국적인 이미지 전달을 위해 인도의 전통 복식이나, 미국 원주민 등의 치장을 해석한 패션 아이템을 차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K-pop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고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팬들을 맞이하면서 담론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Cosmopolitan(2021)의 기사는 변화한 문화적 전유에 대한 담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은 팔콘을 옆에 끼고 느긋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다. 과거 수많은 한국 연예인이 드레드락스를 했지만 논란이 되지 않았다. 샤크라가 인도인 분장을 하고(2000), 버블 SISTERS가 블랙페이스로 앨범 재킷을 찍었다(2003) 시절도 있다. 그러나 마마무가 브루노 마스를 따라 한다면 블랙페이스를 했을 때(2017), 모모랜드가 아오자이와 멕시코 의상을 입고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때(2018), (여자)아이들이 모스크가 그려진 세트에서 노래했을 때(2019), 어느덧 세계로 확장된 K팝 팬덤은 경고했다. 한국이 다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건 알지만 앞으로는 바뀌어야 한다고”

이처럼 동시대의 K-pop 아티스트는 문화적 전유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논란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아티스트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드레드락스(dreadlocks) 헤어스타일로 문화적 전유의 비판을 받은 박재범은 “우린 소수 집단을 괴롭히는 다수 집단이 아니고 문화를 훔치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동료이고 문화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얕은 지식으로 힙합과 흑인 문화를 재단하는 사람들을 바로잡을 힘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인종 중심으로 판단되는 문화적 전유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다(BBC Korea, 2021). 즉, 힙합 음악의 아티스트이며, 미국 흑인 이민 역사에 대한 깊은 존중을 가진 박재범은 그 문화를 훔칠 의도가 없으며 그의 인종적 배경 또한 백인 위주의 지배 집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문화를 순수하게 감상하고 즐기는 것뿐인데 그것을 검열하는 것은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입장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교적, 역사적 전통을 담은 복식이 타집단에게 패션화되어 소비되는 현상을 비판하고 있는 담론과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타임즈의 Kim(2023)은 K-pop이 가진 파급력을 ‘소프트 파워’라고 묘사하며 “한국이 가진 핵무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Park (2020)는 K-pop이 가진 파급력이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K-pop은 타문화권과 동등한 문화융합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파급력으로 인해 비대칭적 문화융합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를 분석하고 그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케이팝 문화적 전유’ 및 ‘K-pop cultural appropriation’의 국·영문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였고,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한 사례연구와 영상 콘텐츠 분석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K-pop 아티스트의 문화적 전유에 대한 문제는 2014년에 2건, 2015년에 2건에 그쳐 크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CL, 방탄소년단, 에픽하이, 오마이걸과 같은 K-pop 아티스트의 문화적 전유 사례가 뉴스 기사의 소재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뉴스 기사 분석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사 속에서 K-pop 아티스트의 문화적 전유는 리듬, 가사 등의 음악적 측면과 그들의 패션 사례로 다루어지는데 연구 분석 대상으로 삼은 패션의 사례는 총 60개이다. 연구자는 수집된 60개의 문화적 전유 사례를 대상과 방식 그리고 문화권으로 나누어 분류했다. 가장 많은 사례에서 문화적 전유의 대상으로 다루어진 것은 전통(33개)이었으며, 인종(12개), 종교(12개) 그리고 역사(3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식에서는 비맥락화(31개), 전형화(13개), 환상 및 낭만화(13개) 그리

고 희화화(3개)의 순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다루어진 문화권은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 문화(38개)가 가장 많았고 인도 힌두교 문화(10개), 미국 원주민 문화(6개), 이슬람 문화(3개), 이집트 문화(2개), 중국 문화(1개)로 나타났다. 기자들은 최근의 사례뿐만 아니라 K-pop이 본격적으로 글로벌화되기 전인 2000년 초반의 사례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버블시스터즈의 블랙페이스 사례는 2003년에 일어났지만 가장 최악의 문화적 전유 사례 중 하나로 뽑혔다(Popcrush staff, 2018). 이는 문화적 전유가 인종 문제와 같이 심각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뉴스 기사를 통해 수집된 사례는 의류학 분야의 문화적 전유에 대한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대상과 방식으로 나누어 유형화했다. 문화적 전유의 대상 분류는 Kim and Park(2021)을 사용하였으며, 문화적 전유의 방식으로는 Lee(2019)와 Yi and Yim(2020)의 연구에서 중첩되는 부분을 통합하고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뉴스 기사 사례분석을 위해 사용된 이론적 틀은 <Table 1>과 같다.

다음으로 문화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루고자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추가로 분석했다. ‘K-pop cultural appropriation’의 영문 키워드를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검색하였다. 다양한 국적을 가지며 구독자를 5만명 이상 보유하고 생산 콘텐츠가 50개 이상으로 꾸준한 활동을 보이는 유튜브 채널 ‘AdeolaAsh(미국)’, ‘DKDKTV(한국)’, ‘Kpopish(인도)’, ‘Redvelvetsus(밝히고 있지 않음)’, ‘Sebastine(미국)’ 5개를 대상으로 총 27개의 영상을 분석했다. ‘AdeolaAsh’와 ‘Sebastine’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흑인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전유 사례를 주로 비판하고, ‘Kpopish’는 인도 문화에 대한 사례를 다루며, ‘DKDKTV’는 한국 채널로 자기 비판적인 콘텐츠를 생산한다. 국적을 밝히지 않은 ‘Redvelvetus’는 종합적인 맥락에서 문화적 전유의

Table 1. 문화적 전유의 대상과 방식.

문화적 전유의 대상 (Kim & Park, 2021)			문화적 전유의 방식 (Lee, 2019; Yi & Yim, 2020)	
구분	설명	문제점	구분	설명
인종	• 인류를 피부색, 모발과 같은 신체적 특징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후천적으로 변형할 수 없는 유전적 성질	• 인종차별 • 인종주의 • 백인중심	비백락화	•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모방하거나 모욕하는 것
전통	• 한 집단이 오랜 기간 가져온 관습, 양식, 의식, 태도 등이 전승되는 것	• 장인정신 도용 • 역사적 가치의 상업적 이용	전형화	• 존중하는 해석이 아니라 단순한 형태로 반복하여 열등한 가치로 치부하는 것
종교	• 신을 숭배하거나 특정한 교리를 따르고 영적인 의미를 믿는 것	• 신성함 왜곡 • 잘못된 표현	희화화	• 타자화된 시각으로 해당 문화를 우스꽝스럽게 하는 것
역사	• 해당 문화권에 전해오는 유산	• 서양 우월의식 • 식민주의 사상 • 착취와 지배	환상 및 낭만화	• 이국적인 정취를 불러일으키고, 미학적 예찬의 대상을 이유로 타자화하는 것

사례를 다루고 있었다.

유튜브 영상은 상호 연관성을 보이는 콘텐츠끼리 유형화한 후 크리에이터가 제기한 문화적 전유의 위험성을 종합했다. 뉴스 기사 검색을 통한 사례 수집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문화적 전유의 대상과 방식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고,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서는 문화 당사자인 크리에이터의 의견을 살펴볼 수 있어 사례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볼 수 있었다. 뉴스 기사에서 다루어진 사례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서 논의되어 유형별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종합할 수 있었다.

IV. 연구 결과

1. K-pop 아티스트의 패션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대상과 방식

1) 문화적 전유의 대상

첫째, K-pop 아티스트의 문화적 전유는 인종을 대상으로 했다(Table 2). <Figure 1>의 슈퍼주니어의 멤버 신동은 블랙페이스를 자행하여 흑인 인종에

대한 전유를 일으켰다(Yourfaveisproblematic, n.d.). 이와 같은 사례는 인종차별적 행위로 규정되는데, 블랙페이스의 기원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백인 연주자는 게으르고, 무지하고, 비겁하고, 지나치게 성적인 것으로 흑인의 이미지를 묘사하기 위해 광택제와 코르크로 피부를 검게 하고 너털너털한 옷을 입어 치장했다(Kaur, 2019). 블랙페이스를 통해 K-pop 아티스트가 행한 것은 단지 피부를 더 어둡게 칠하거나 의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적이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재현한 것이다. 메이크업을 통해 흑인의 신체적 특성을 모방하고, 태닝과 셰이딩(shading) 등 이용해 어두운 피부를 표현하여 흑인 여성의 미를 인공적으로 흠치는 블랙피싱 또한 나타났다. <Figure 2>의 래퍼 트루디는 짙은 피부와 화장법, 드레드 헤어로 흑인을 모방했다(Nguyen, n.d.). 동시에 음악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흑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랩을 하지만 실제로 그녀의 개인적인 삶과는 관련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Figure 3>의 2017년 4인조 그룹 마마무(Mamamoo)가 콘서트 현장에서 브루노 마스(Bruno Mars)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다는 명목으로 블랙페이스를 했다. 이후 그들은 글로벌 팬들에

Table 2. 인종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전유의 사례.







인종		
 <p>Figure 1. 슈퍼주니어 신동의 블랙페이스. From Yourfaveisproblematic. (n.d.). https://www.tumblr.com</p>	 <p>Figure 2. 트루디. From Nguyen. (n.d.). https://www.reformthefunk.com</p>	 <p>Figure 3. 마마무의 블랙페이스. From Resnikoff. (2017). https://www.digitalmusicnews.com</p>

Table 3. 전통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전유의 사례.

전통		
 <p>Figure 4. 레드벨벳 조이의 드레드 헤어. From CoconutStan. (2019). https://aminoapps.com</p>	 <p>Figure 5. 리사의 드레드 헤어. From Cha. (2021). https://www.soompl.com</p>	 <p>Figure 6. 현아의 가발. From Yang & Yoon. (2022).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p>

게 대대적인 사과를 해야만 했다(Resnikoff, 2017).

둘째, 해당 문화권의 전통을 대상으로 문화적 전유를 일으켰다(Table 3). <Figure 4>의 레드벨벳의 조이는 흑인의 헤어스타일 전통을 전유했다(CoconutStan, 2019). 헤어를 땅아 관리하는 전통은 아시아의 티베트 부족에서도 나타나지만, 곱슬머리를 굽은 형태로 땅아 관리하는 것은 흑인의 전통이다(AdeolaAsh, 2020b). 흑인 커뮤니티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헤어스타일은 피부색과 마찬가지로 차별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의 80% 직장에서의 보수적인 분위기에 맞게 헤어스타일을 바꿀 필요를 느낀다고 조사된 바 있다(Arefin, 2020). 2019년 12월 19

일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Phil Murphy)는 ‘누구도 그들의 타고난 머리카락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Figure 5>의 블랙핑크의 리사는 그녀의 솔로 데뷔곡인 ‘머니(Money)’의 뮤직비디오에서 아프리카의 원주민에서 유래한 헤어로 해외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Cha, 2021). Yang and Yoon(2022)의 기사는 해당 사례를 언급하면서 K-pop 아티스트의 드레드락스 치장은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적 맥락이 아니고 단순히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것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들이 선보이는 음악과 패션이 가진 아프리카계 미국인 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언급

하면서, K-pop이 해외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할 것인지 이야기할 뿐 외국 음악 요소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흑인 커뮤니티의 상징인 헤어스타일은 단순한 미적 의미가 아니라 인종을 대표하는 전통 헤어스타일로 이를 비맥락적으로 타인종이 흉내 내는 것은 문화적 전유이다. 따라서 <Figure 6>처럼 아티스트 현아가 흑인 미용용품점에서 곱슬머리 가발을 사고 이를 본인 SNS에 게재한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된다(Yang & Yoon, 2022).

셋째, 문화권의 종교가 대상이 되어 비맥락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Table 4). <Figure 7>의 산다라 박은 2009년에 발매된 2NE1의 싱글 앨범 파이어에서 인도 여성이 특별한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장식인 빈디스(bindis)를 치장하고 나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Ambika, 2013). <Figure 8>의 청하는 인도인에게 종교적 의미를 지닌 마앙 티카(Maang tikka)를 치장에 사용하여 종교에 대한 전유를 행했으며(Koreaboo, 2020), <Figure 9>의 2020년 엔시티 유(NCT U)는 ‘Make a wish(birthday song)’의 뮤직비디오와 홍보 영상에서 이슬람 문화의 장식구를 사용했다(Lyons, 2020). 또한, 그들은 SBS 인기가요의 무대 구성에서 시아파 무슬림들의 성지로 여겨지는 이슬람 사원과 종교적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Zi, 2020). 무대 장식에 사용된 종교적 텍스트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족의 처참한 죽음에서 출처한 것으로 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모독이다(Kpopish, 2020). 이는 무슬림 팬에게 아주 심각한 문화적 전유로 받아들여졌으며, 트위터에 #SMStopDisrespectingIslam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야기하였다.

넷째, 해당 문화권의 역사를 대상으로 문화적 전유가 일어났다(Table 5). <Figure 10>은 걸그룹 티아라의 사례로 2012년 뮤직비디오 ‘Yayaya’는 미국 원주민의 스테레오타입을 담은 착장을 선보여 최악의 문화적 전유의 사례로 손꼽힌다(Dazed digital, 2020). 또한, 첫 미니앨범 데뷔무대에 다양한 문화권의 전통 의상을 입고 홍보에 나선 <Figure 11>의 신인 그룹 NTX는 문화적 전유라는 논란에 휩싸였다(Sweeting, 2021). <Figure 12>의 블랙핑크 리사는 이집트를 연상시키는 무대 장식과 의상으로 역사에 대한 문화적 전유의 논란을 일으켰다(Spinorbinmusic, 2021). 리사의 사례에 대하여 Gabr(2022)는 ‘더 이국적이고 신비한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 뮤직비디오나 패션에서 이집트의 문화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백하게 도용되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서술하면서 ‘음악은 예술의 자유로운 형태이지만 범죄도 예술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다’라고 언급했다. 즉, 과급력을 가진 대중문화를 기반

Table 4. 종교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 전유의 사례.

종교		
		
<p>Figure 7. 파이어 뮤직비디오의 산다라 박. From Ambika, (2013). https://seoulbeats.com</p>	<p>Figure 8. 청하. From Koreaboo, (2020). https://www.koreaboo.com</p>	<p>Figure 9. 엔시티유. From Lyons, (2020). https://www.koreaboo.com</p>

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창작자가 문화적 전유를 야기한다면 이를 예술적 자유 표현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도 볼 수 있다.

2) 문화적 전유의 방식

K-pop 아티스트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방식(Table 6)으로는 첫째, 해당 문화를 사용하는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그 의미를 잃게 만드는 비맥락화가 있다. 예를 들어 <Figure 13>의 화사는 흑인이 자주 사용하는 두건의 종류인 듀라그(durag)를 비맥락적인 상황에 사용하여 문화적 전유의 논란을 일으켰다(Sidique, n.d.). 비맥락화의 대상은 전통, 종교, 역사를 대상으로 일어났다. 이들 사례에서는 전통을 그 의미와 기원에서 벗어나 미적 요소로 사용했고, 종교의 본래 의도와 함의에서 벗어나 무지하게 사용했으며, 역사 사실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무분별하게 차용하였다. 전통을 대상으로 한 비맥락화는 앞서 살펴본 화사의 사례(Figure 13), 종교를 대상으로 한 비맥락화는 <Figure 7> 그리고 역사를 대상으로 한 비맥락화는 <Figure 11>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둘째, 해당 문화의 복합적인 실체와는 다르게 굳어진 이미지를 야기하는 전형화를 들 수 있다. 2021년 2월 웨이보에서 실시간 최고 검색어가 된 블랙핑크의 제니는 중국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인 레드 보이(Red boy)를 연상시켰고(Figure 14), 네티즌들은 중국 문화의 전형화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했다(Lewis, 2021). 전형화의 대상은 인종, 전통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이들은 특정 인종의 시각적, 미적 특징을 부각해 고착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특정 전통을 단편적으로 사용 및 과장하여 고착화했다. 인종을 대상으로 한 전형화는

Table 5. 역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 전유의 사례.

역사		
		
Figure 10. 티아라 'Yayaya'. From Dazed digital. (2020). https://www.dazeddigital.com/	Figure 11. NTX 멤버의 전통 의상. From Sweeting. (2021). https://www.koreanboo.com/	Figure 12. 리사의 무대 사례. From Spinorbinmusic. (2021). https://twitter.com/

Table 6. K-pop 아티스트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방식.

비맥락화	전형화	희화화	환상 및 낭만화	
				
Figure 13. 마마무 화사. From Sidique. (n.d.). https://www.quora.com	Figure 14. 블랙핑크의 제니. From Lewis. (2021). https://www.kpopstarz.com	Figure 15. 노라조의 '카레' 뮤직비디오. From Lim. (2020). http://star.ohmynews.com	Figure 16. LOONA의 뮤직비디오. From Timesofindia. (2021).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	Figure 17. 오마이걸 유아. From Kim. (2020). http://star.ohmynews.com

<Figure 3>의 마마무, 전통을 대상으로 한 전형화는 <Figure 6>의 현아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셋째, 해당 문화에 대하여 깊은 이해 없이 코미디의 대상으로 삼는 희화화가 있다. 노라조는 2010년 발매한 곡 ‘카레’와 그 뮤직비디오에서 치장한 복장 및 분장이 인도 문화에 대한 전유 논란을 일으키며 뒤늦은 사과를 해야만 했다(Figure 15). 노라조의 노래에서는 반복적으로 ‘타지마할’, ‘나마스페’, ‘카레’, ‘샨티’라는 단어가 가사로 등장하면서 인도 문화를 연상시키지만, 뮤직비디오에서 멤버 조빈이 입은 튜닉과 헤드피스는 인도 복식이 아니다. 노래는 단순하게 반복되는 멜로디와 안무로 코미디적인 요소를 담았지만, 해당 문화를 희화화시켜 문화 당사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희화화는 인종을 대상으로 일어났는데, 특정 인종의 시각적, 미적 특징을 코미디의 요소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Figure 1>의 사례는 인종을 희화화한 가장 심각한 문화적 전유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상 및 낭만화가 있다. 걸그룹 LOONA의 뮤직비디오 ‘PTT(Paint the town)’에서는 머리 장식을 낭만적인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사용했고, 인도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전유라는 논쟁이 있었다(Figure 16). 걸그룹 오마이걸의 멤버 유아는 솔로곡 ‘숲의 아이’에서 국적 불명의 원주민을 연상시키는 장식, 화장 그리고 장신구를 차용함으로

서 문화적 전유의 사례를 행했다(Figure 17). 환상 및 낭만화의 방식은 미적인 가치상승을 추구하지만, 이 또한 비맥락적인 상황에서 행해지고 해당 문화에 본질로부터 멀어져 당사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환상 및 낭만화는 종교를 대상으로 일어났는데 시각적 요소를 종교적 의미가 부재한 채 감상적으로 소구한다. <Figure 8>의 사례는 종교를 대상으로 환상 및 낭만화가 이뤄진 대표적 사례이다. 환상 및 낭만화는 또한 역사를 대상으로 일어났으며, 비현실적인 시각미 추구를 위해 타문화를 연출 요소로 사용했다.

2.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위험성

연구 대상으로 삼은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서는 문화적 전유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사례를 소개하거나, 비판 및 개인적 의견을 전달하고 타 콘텐츠에 리액션을 전달하는 유형이 관찰되었다(Table 7). 문화적 전유의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는 콘텐츠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는데 사례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역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다(Figure 18). 다음으로 문화적 전유 사례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과 의견을 전달했다(Figure 19). 이 유형의 콘텐츠는 비교적 직접적인 표현으로 사례를

Table 7. 유튜브 영상 콘텐츠 분석 결과.

개념 소개	비판 및 의견 전달	크리에이터 리액션 전달
 <p>Figure 18. K-Pop 인종주의, 문화적 전유, 컬러리즘, 문화 비감수성. From AdeolaAsh. (2020b). https://www.youtube.com</p>	 <p>Figure 19. K-pop의 최악의 문화적 전유 사례. From DKDKTV. (2022). https://www.youtube.com</p>	 <p>Figure 20. 문화적 전유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인가? From Sebastine. (2021). https://www.youtube.com</p>

비판했으며, 일부 콘텐츠에서는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전유의 논란 여지가 있는 영상에 대해 크리에이터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콘텐츠가 있었다(Figure 20). 이 유형의 콘텐츠에서는 실시간으로 비추어지는 시각적 요소에 대하여 문화적 전유의 논란 여지가 있는지 의견을 들려줌으로써 시청자의 공감을 유도하기도 했다. 각각의 유형에서 크리에이터들은 동일하게 K-pop 아티스트의 문화적 전유의 직접적인 사례로 그들의 패션을 손꼽았으며 그 위험성에 대해 주장했다.

첫째, K-pop 아티스트의 문화적 전유 인종을 대상으로 한 전형화와 희화화 사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부터 가장 큰 비난을 받았다. 유튜브 아테올라는 슈퍼주니어 멤버인 신동과 예성의 블랙페이스 사례를 비판했다. 신동과 예성은 흑인의 특정 신체 특성을 메이크업으로 모방하여 전형화와 희화화를 야기했고, 얼굴을 검게 칠하는 직접적인 인종차별 행위로 규정되는 블랙페이스를 했다. 또한 엑소 멤버들이 더 짙은 피부색을 가진 카이를 놀리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들의 행동에 나타나 있는 컬러리즘의 문제를 언급했다(AdeolaAsh, 2020b). 컬러리즘이란 유색인종 커뮤니티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더 밝은 컬러의 피부색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 현상을 지칭한다(Park, 2020). 유튜브 세바스틴(Sebastine)은 인종차별적 문화적 전유 사례를 비판하며, ‘우리의 문화를 가져가려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세바스틴은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의 문화에 대해 이윤을 착취당하는 문화의 검은 양이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Sebastine, 2022). 음악적으로는 흑인의 영향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문화적 전유를 자행해 인종차별적 논란을 야기하는 아티스트를 비난한 것이다.

둘째, 전통의 비맥락화와 전형화는 해당 전통이 탄생한 맥락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한 미적 이미지를 고착화하여 선입견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K-pop 아티스트의 문화적 전유 교육 영상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업데이트한 아테올라는 ‘노예제와 인종차별의 역사가 없었다면 헤어스타일에 대한 문화적 전유의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였다(AdeolaAsh, 2020a). 그녀는 또한 콘로(cornrows), 드레드락스와 같은 흑인 커뮤니티의 상징이 되어온 헤어스타일이 그동안 청결하고 정돈되지 못하다고 치부되면서 차별받거나 나아가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다는 기사를 언급했다. 흑인의 헤어스타일은 주류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아왔고 고통스러운 가발이나 헤어 시술을 선택하게 하면서 흑인에게 자연적 머리를 하는 것을 금기시시켰다(Mbilishaka et al., 2020). 이러한 흑인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은 채 전통을 패션을 통해 전유하고 갱스터랩을 따라 한다면 주류 백인 문화에서 굳어진 흑인의 스테레오타입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이다.

셋째, 역사의 비맥락화와 환상 및 낭만화는 해당 문화에 존중 없이 무지하게 일어나 전혀 다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유튜브 디케이디케이티브이(DKDKTV)는 MC몽의 노래 ‘Indian boy’에서 미국 원주민 복장을 전유했지만 미국의 지리나 역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아프리카의 코끼리 사운드가 나오며, 티아라의 노래 ‘Yayaya’에서는 원숭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원주민들을 짐승처럼 묘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DKDKTV, 2022). 이는 해당 문화의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주의에 대한 착취를 재현하는 것이다. DKDKTV(2022)는 ‘이 노래는 2011년에 발매되었고 그 당시 K-pop이 이렇게 성공을 거둘지 몰랐으며 단순히 국내에서 소비되리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유년시절 유치원에서 미국 원주민 코스튬을 입거나 입을 막아 소리를 내었던 경험을 언급해 다문화 감수성이 부재한 교육환경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는 문화적 전유에 대한 개념을 알면서도 또다시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했다.

넷째, 종교의 환상 및 낭만화는 해당 종교의 교리나 깊은 종교적 의미에서 벗어나 음악과 퍼포먼스를 더 이국적이고 색다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을 소구하였다. NCT U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비판한 유튜버 케이포피쉬(Kpopish)는 ‘왜 K-pop 그룹이 아직도 종교를 단지 미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전혀 사전조사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무슬림의 신념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Kpopish, 2020). 따라서 시각적인 참신함을 추구하는 창작 과정에서 인종, 전통, 종교, 역사와 같은 소비재로 취급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과 정체성에 해당하는 영역을 판단하지 못하고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종합적 논의

뉴스 기사 사례분석과 유튜브 영상 콘텐츠 분석을 통해 분석된 K-pop 아티스트의 문화적 전유의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인종을 대상으로 한 전형화와 희화화는 특정

외모를 부각해 고착된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이를 과장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인종을 희화화하는 블랙페이스는 인종차별적 행위이기 때문에 2017년의 마마무의 사례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최근의 사례에서는 흑인의 미를 흠치는 블랙피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입술을 두껍게 보이게 하는 화장, 태닝으로 어두운 피부, 엉덩이 볼륨을 키우는 몸매 관리 행동 등으로 블랙피싱의 비판받은 가수 제시는 ‘나는 어린 시절부터 햇빛을 사랑해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AdeolaAsh (2021)은 옛날 사진과 현재를 상호 비교하면서 현저히 달라진 그녀의 외모를 근거로 그녀를 비판했다. 따라서 인종을 희화화는 직접적인 차별행위는 없어지고 있지만, 미적 선호라는 명분 아래 더 간접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인종이 가진 문화적 유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전유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가장 많은 사례에서 문화적 전유의 대상이 된 전통은 특히 흑인 커뮤니티의 상징인 헤어스타일로 나타났다. 이는 K-pop이 음악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

Table 8.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							
대상	인종		전통		역사		종교
방식	전형화	희화화	비맥락화	환상 및 낭만화	비맥락화	환상 및 낭만화	환상 및 낭만화
내용	특정 인종의 외모 특징을 부각시켜 고착된 이미지 형성	유전적 특성인 외모를 과장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	유래와 기원에 대한 이해 없이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	전통의 미적인 요소를 단편적으로 차용하여 그 가치를 절하하는 것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해당 문화를 사용하는 것	역사적 맥락과 함의를 배제하고 미적 단순화를 통해 평면화시키는 것	종교적 교리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이 시각적 요소만 차용하여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으로 구성하는 것
사례	블랙피싱을 통해 과도하게 성적인 이미지를 형성	블랙페이스를 통해 흑인의 피부를 모방하고 게으르거나 웃기게 표현	특정한 경우에 쓰이는 복식이나 헤어 관습을 무분별하게 차용	특정 전통을 과하게 미적인 것으로만 소구	역사적 사실과 다른 맥락에서 복식이나 헤어 장식 등을 사용	역사적 의미를 지닌 왕조의 장식이나 문양 등을 무대의상 및 구성에 사용	종교의 영적인 의미를 격하하는 무대 장식, 종교 복식을 무분별하게 착용
위험성	해당 인종에 대한 선입견 조래	인종차별 담론 형성	전통에 대한 존중 결여	전통에 대한 가치 절하	역사 사실의 왜곡	식민주의에 의한 착취 및 지배 재현	종교에 대한 모독 및 신성함 절하

으로 판단이 된다. 많은 K-pop 아티스트가 흑인 음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드레드를 선택하지만, 흑인의 헤어스타일로 인한 차별의 역사를 겪지 않은 타인종이 미적으로 소구하는 것은 해당 문화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이는 전통에 대한 유래와 기원에 대해 이해 없이 시각적 요소를 차용했기 때문에 비맥락적이라고 평가받는다. 미적 가치상승을 의도한 환상 및 낭만화의 방식도 단편적으로 차용했다는 점에서 전통의 가치를 절하하는 것이다.

K-pop 아티스트는 또한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나거나 왜곡하는 문화적 전유의 오류를 범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비맥락적으로 아프리카와 미국 원주민의 역사적 문화를 섞거나, 이집트의 문화적 유산의 미적인 요소만 차용하여 전유했다. 마지막으로 종교를 대상으로 일어난 문화적 전유는 특히 인도의 힌두교 문화와 무슬림 문화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국내 무슬림 인구는 0.4%로 추정되며(BBC Korea, 2022), 힌두교 인구의 통계 수치는 없다. 그만큼 두 종교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이국적’이고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문화적 전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종교의 교리나 문화에 대한 깊은 고찰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이집트나 중국의 역사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문화적 전유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2020년 블랙핑크는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의 뮤직비디오에서 힌두교의 가네샤(Ganesha) 신의 종교적 상징물을 바닥에 놓아 문화적 전유의 논란 중심에 섰다. 비판받은 와이지 엔터테인먼트(YG entertainment)는 해당 장면을 뮤직비디오에서 삭제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Eimis, 2020). 이처럼 대부분의 소속사에서는 문화적 전유의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것을 꺼리고,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반복하고 있다. 이는 해당 종교에 대한 모독 및 신성한 가치를 절하한다.

문화적 전유는 창작자의 의도와 고의성과 관계 없이 비대칭적인 권력 구조로 인해 야기되며, 미적 선호와 예술적 자유라는 이름하에 행해진다. 타문화의 복식 구성요소를 비맥락적으로 차용하는 것은 창작자가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도 문화적 전유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영감이나 인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의 인종, 전통, 종교, 역사를 고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를 재해석하는 과정이 비맥락화, 전형화, 희화화, 환상 및 낭만화와 관련되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타문화를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과 방식의 문제가 있다면 문화를 통해 이뤄지는 인종차별적 역사를 답습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4. 제언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를 방지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음악과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문화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과 존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욘세(Beyoncé)는 2022년 앨범 ‘르네상스(Renaissance)’에서 자신은 이성애자이지만 존중을 가지고 퀴어(queer) 커뮤니티에 영감을 받아 주제와 장르를 풀어냈으며, ‘블랙 이즈 킹(Black is king)’에서는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Ahlgrim & Han, 2023). 이처럼 문화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문화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감사가 뒷받침된다면 문화적 전유의 논란은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문화적 전유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통해 방지될 수 있다. 첫째, 다문화주의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패션화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하여 개념화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가장 많은 사례의 방식으로 분석

된 비맥락화는 무지성에 기반하고 있었고, 다문화주의적 이해 부재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었다. 다문화주의 감수성에 대해 강신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구원은 K-pop 산업 내에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을 넘어 산업 내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관점이 전환되어야 하고,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콘텐츠 제작에 공을 들이는 만큼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필수라고 언급했다(Kang, 2023). 둘째, 창작물에 대하여 문화적 전유를 방지하기 위한 크리테리아(criteria)를 개발하고 사용하여 더욱 객관적인 시선으로 창작물을 평가하고 문제성을 자각하여야 한다. 현재 K-pop 아티스트의 음악과 패션 창작 과정에는 차용한 요소가 한 문화의 정체성과 연결된 것인지, 이를 패션화하는 것이 타 문화권에서 금지되어있는지 검토해보는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관련하여 하재근 문화 평론가는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권에 따라 어떠한 금기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SBSenter.official, 2020). 셋째, 해당 문화권의 취약계층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이익 분배 캠페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K-pop은 다양한 민족과 국가, 커뮤니티의 문화적 기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주었던 사례는 방탄소년단이 유일했다. K-pop 아티스트가 음악과 패션에 대해 문화적 기여를 받은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무지성을 의심받지 않고 문화를 인정하는 것으로써의 창작물로 대중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K-pop 아티스트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의 대상과 방식을 밝히고 그 위험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패션에서 타문화의 유산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전유는 문화 소유권을 이전하고 착취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뉴스 기사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K-pop 아티스트의 문화적 전유는 인종, 전통, 종교, 역사를 대상으로 비맥락화, 전형화, 회화화, 환상 및 낭만화의 방식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서 어떤 위험성을 초래하는지 논의되었다.

뉴스 기사와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서 모두 동일하게 원인으로 꼽은 것은 K-pop 아티스트와 창작자의 무지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본질에서 벗어난 비맥락화가 가장 빈번한 전유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K-pop 아티스트와 관련 창작자들은 타문화권의 문화를 학습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 가지 실천까지 뒷받침된다면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전유는 지양될 수 있다. K-pop이 내재하는 혼종성과 초국적성이 시각적, 청각적 기쁨을 주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한다. K-pop 문화가 가진 권력이 문화제국주의를 형성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하며, 나아가 포스트 식민주의의 담론 속 다양한 패션 미디어와 문화적 전유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AdeolaAsh. (2020a, October 5). K-pop trainees learn about cultural appropriation reaction video. *Youtube*.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VJOLdjO-Tr8&t=12s>
- AdeolaAsh. (2020b, December 14). K-pop racism, cultural appropriation, colorism, & cultural insensitivity. *Youtube*.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AQ0tR4RXXMHY&t=205s>
- AdeolaAsh. (2021, January 25). K-pop ripping off black artists? Blackpink Lisa vs Cierra Nichols, Rain JYP Bobby Brown, Jessi Dainá. *Youtube*. Retrieved July 18, 2023,

-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jeFEto6PsvY>
- Ahlgrim, C., & Han, Y. (2023, January 14). Gwen Stefani is only the latest glaring example of cultural appropriation in pop music. *Insider*. Retrieved August 22, 2023, from <https://www.insider.com/gwen-stefani-cultural-appropriation-pop-music-problem-2023-1>
- Ambika. (2013, July 12). Bindis and why Sandara Park shouldn't wear one. *Seoulbeats*.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seoulbeats.com/2013/07/bindis-and-why-sandara-park-shouldnt-wear-one/>
- Arefin, D. S. (2020, April 17). Is hair discrimination race discrimination?. *ABA*.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www.americanbar.org/groups/business_law/resources/business-law-today/2020-may/is-hair-discrimination-race-discrimination/
- BBC Korea. (2021, June 21). 박제범 드레드에 ‘문화적 전유’ 비판 정당인가 [Is it justifiable to criticize Park Jae-beom's dreads for cultural appropriation]. *BBC Korea*.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bbc.com/korean/news-57551886>
- BBC Korea. (2022, April 1). 무슬림인 내가 한국에서 사는 법 [How to survive as muslim in Korea]. *BBC Korea*. Retrieved August 22, 2023, from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0945308>
- Cha, E. (2021, September 20). Watch: Blackpink's Lisa drops fierce performance video for "Money". *Soompi*.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soompi.com/article/1489444wpp/blackpinks-lisa-announces-release-date-for-money-video-with-1st-teaser>
- Choi, G. (2022, September 3). 영감인가 도용인가? 패션업계와 문화적 전유 이슈 [Is it inspiration or theft? fashion industry and cultural appropriation issues]. *iconsumer.or.kr*.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www.iconsum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871>
- CoconutStan. (2019, June 14). Just clearing something up. *Amino*.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aminoapps.com/c/red-velvet/page/blog/just-clearing-something-up/EZnB_leTPuwXobxXMe82LWZE1zWY3518jV
- Cosmopolitan. (2021, March 26). 패션계에 거듭되는 문화 전유 논란 [Discussion on cultural appropriation in fashion industry continues]. *Cosmopolitan*.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53921>
- Chung, H. (2022, November 7). 방탄소년단, 지난 10년 빌보드 ‘핫100’ 1위 최다 아티스트 [방탄소년단 is the number one artist on Billboard's "Hot 100" list for the past 10 years]. *The Hankyoreh*.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hani.co.kr/arti/culture/music/1066023.html>
- Chung, H. (2023, January 11). K팝 최초...블랙핑크, 미 최대 음악축제 코첼라 ‘헤드라이너’ [The first in K-pop..., Blackpink is a headliner of the Coachella festival]. *The Hankyoreh*.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hani.co.kr/arti/culture/music/1075228.html>
- Dazed digital. (2020, August 12). How K-pop is responding to its longstanding appropriation problem. *DAZED*.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dazeddigital.com/music/article/50045/1/how-k-pop-is-responding-to-cultural-appropriation>
- De Luna, E. (2020, July 20). ‘They use our culture’: The Black creatives and fans holding K-pop accountable. *The Guardian*.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20/jul/20/k-pop-black-fans-creative-s-industry-accountable-race>
- DKDKTV. (2022, July 19). The worst cases of cultural appropriation in Kpop (sorry India). *Youtube*.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I5NufATYY98&t=54s>
- Eimis, S. (2020, December 16). KPOP entertainment companies face criticism for cultural appropriation. *The International*. Retrieved August 22, 2023, from <https://issinternational.org/7936/arts-and-entertainment/cultural-appropriation-in-k-pop-as-it-reaches-larger-audiences/>
- Empire, K. (2022, December 3). Blackpink review - K-pop juggernaut with world-beating attitude. *The Guardian*.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22/dec/03/blackpink-o2-arena-london-review-black-pink-k-pop-juggernaut-with-world-beating-attitude>
- Gabr, A. (2022, January 15). Is K-pop borrowing its greatest hits from egyptian music?. *Scoopempire*.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scoopempire.com/is-k-pop-borrowing-its-greatest-hits-from-egyptian-music/>
- Gardner, H. (2019). *The impact of African American musicianship on South Korean popular music: Adoption, appropriation, hybridization, integration, or o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rvard Extension School, Cambridge.
- Ha, S.-B. (2012). Yellow skin, white masks: A historical consideration of internalized racism and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Journal of Institute of Human Sciences*, 33(-), 525-556.
- Huber, L. P., & Solorzano, D. G. (2015). Visualizing everyday racism: Critical race theory, visual microaggressions and the historical image of Mexican banditry. *Qualitative inquiry*, 21(3), 223-238. doi:10.1177/1077800414562899
- Ilchi, L. (2019, May 16). Gucci accused of cultural appropriation over ‘Indy Turban’. *WWD*.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wwd.com/feature/gucci-indy-turban-cultural-appropriation-backlash-1203132880/>
- Jeong, H. Y., & Seo, S. H. (2013). The implicit meaning of British fashion into English culture identity.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1(2), 234-245. doi:10.7741/rjcc.2013.21.2.234
- Kang, S. (2023, January 25). 초국적화와 케이팝의 문화다양성 [Transnationalization and cultural diversity of K-pop]. *Mediaus*.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401>
- Kaur, H. (2019, February 7). This is why blackface is

- offensive. *CNN*.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edition.cnn.com/2019/02/02/us/racist-origins-of-blackface/index.html>
- Kawamura, Y., & De Jong, J. W. M. (2022). *Cultural appropriation in fashion and entertainment*. Bloomsbury: New York.
- Koda, H., & Martin, R. (2004, October). Orientalism: Visions of the East in Western dress. *The Met*. Retrieved August 22, 2023, from https://www.metmuseum.org/toah/hd/orie/hd_orie.htm
- Koreaboo. (2020, April 20). Chung Ha's "Stay tonight" concept receives mixed reactions from fans. *Koreaboo*.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koreaboo.com/news/chungha-concept-teaser-receives-mixed-reactions-fans/>
- Kim, D. (2020, October 6). 늑대, 원주민, 꽃장식... K팝 위태롭게 만드는 선택들 [Wolves, natives, flower decoration ... choices that jeopardize K-pop]. *Ohmystar*.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681544
- Kim, J. (2017, November).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와 인터뷰 [Interview with Maria Grazia Chiuri]. *Marie Claire*.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marieclairekorea.com/fashion/2017/11/%EB%A7%88%EB%A6%AC%EC%95%84-%EA%B7%B8%EB%9D%BC%EC%B9%98%EC%95%84-%EC%B9%98%EC%9A%B0%EB%A6%AC%EC%99%80%EC%9D%98-%EC%9D%B8%ED%84%B0%EB%B7%B0/>
- Kim, J.-E., & Park, J.-H. (2021). Cultural appropriation and pursuit of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26(2), 191-204. doi:10.21326/jksd.2021.26.2.017
- Kim, T. (2023, January 1). 콘텐츠 넘어 문화로... “한국이 가진 핵무기” [Beyond contents to the culture: “Nuclear weapon of Korea”]. *Asiatimes*.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1227500345#_mobwcvr
- Kpopish. (2020, October 28). Here's why Muslim fans are upset with NCT. *Youtube*.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xwzHJsPiGnQ>
- Lang, C. (2021, June 10). Keeping up with the Kardashians is ending, but their exploitation of black women's aesthetics continues. *Time*.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time.com/6072750/kardashians-blackfishing-appropriation/>
- Lee, C., & Lee, J. W. (2021) Show me the Monolingualism: Korean hip-hop and the discourse of difference. *Inter-Asia Cultural Studies*, 22(1), 1-15. doi:10.1080/14649373.2021.1886475
- Lee, J. (2019). *K-pop in making of new racial and gender dynamics: Focusing on black female fandom of 방탄소년단*.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S. (2019). Cultural appropriation in contemporary fashion.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2(2), 137-151. doi:10.15187/adr.2019.05.32.2.137
- Lenard, P. T., & Balint, P. (2020). What is (the wrong of) cultural appropriation?. *Ethnicities*, 20(2), 331-352. doi:10.1177/1468796819866498
- Lewis, A. (2021, February 1). BLACKPINK Jennie lambasted for allegedly imitating Chinese culture. *KpopStarz*.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kpopstarz.com/articles/297080/20210201/blackpink-jennie-lambasted-allegedly-imitating-chinese-culture.htm>
- Lim, S. (2020, August 25). 블랙핑크와 10대들의 선의 믿지만... 누군가에겐 모욕 [Blackpink and teenagers believe in good faith, but... an insult to someone]. *OhmyNews*.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669594&CMPT_CD=SEARCH
- Liu, W. M., Liu, R. Z., Garrison, Y. L., Kim, J. Y. C., Chan, L., Ho, Y. C. S., & Yeung, C. W. (2019). Racial trauma, microaggressions, and becoming racially innocuous: The role of acculturation and White supremacist ideology. *American Psychologist*, 74(1), 143-155. doi:10.1037/amp000368
- Lyons, S. (2020, December 11). SM entertainment under fire for “disrespecting islam” with NCT U merch. *Koreaboo*.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koreaboo.com/news/sm-entertainment-nct-u-make-wish-islam-cultural-appropriation/>
- Meade, N. A., Branco, S. F., Burt, I., White, R. K., & Hanks, A. (2022). Cultural appropriation, appreciation, and adaption: A rejoinder to “Effect of a rite of passage ceremony on veteran's Well-Be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100(1), 96-103. doi:10.1002/jcad/12400
- Mbilishaka, A. M., Clemons, K., Hudlin, M. K., Warner, C., & Jones, D. (2020). Don't get it twisted: Untangling the psychology of hair discrimination within Black communit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90(5), 590-599. doi:10.1037/ort0000468
- Mosley, A. J., & Biernat, M. (2021). The new identity theft: Perceptions of cultural appropriation in intergroup contex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1(2), 308-331. doi:10.1037/pspi0000327
- Nguyen, T. (n.d.). The misrepresentation in K-pop. *Reform the Punk*.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reformthefunk.com/features/20the-misrepresentation-in-k-pop17/08/27/k-pop-and-black-culture>
- Ozer, S. (2013). Theories and methodologies in acculturation psychology: The emergence of a scientific revolution?. *Psychological studies*, 58(-), 339-348. doi:10.1007/s12646-013-0203-0
- Park, J., & Chun, J. (2020). What does cultural appropriation mean to fashion design?. *Fashion, Style & Popular Culture*, 10(3), 295-310. doi:10.1386/fspc_00049_1
- Park, S. (2020). Colorism of K-beauty industr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4(6),

- 124-160. doi:10.20879/kjics.2020.64.6.004
- Park, S. (2023). K팝이 세계와 조우하며 마주하는 인종과 젠더의 문제 [Race and gender related problems when K-pop meet the world]. *Current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3(16), 1-5.
- Popcrush staff. (2018, March 6). 7 times K-pop's cultural appropriation went way too far. *Popcrush*. Retrieved September 14, 2023, from <https://popcrush.com/k-pop-scandals-international-blackface-racist/>
- Pozzo, B. (2020). Fashion between inspiration and appropriation. *Laws*, 9(1), 5. doi:10.3390/laws9010005
- Resnikoff, P. (2017, March 9). Kpop group Mamamoo apologizes for 'Blackface' music video. *Digital Music News*. Retrieved July 18, 2023, from digitalmusicnews.com/2017/03/09/kpop-mamamoo-blackface/
- Rogers, R. A. (2006). From cultural exchange to transculturation: A review and reconceptualization of cultural appropriation. *Communication Theory*, 16(4), 474-503. doi:10.1111/j.1468-2885.2006.00277.x
- Sam, D. L., & Berry, J. W. (2010). Acculturation: When individuals and group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mee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4), 472-481. doi:10.1177/1745691610373075
- SBSenter.official. (2020, July 29). 세계 속 K-POP, 문화 전유 논란 [Argument of cultural appropriation of K-pop in the world]. *Youtube*.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PNJt2SgX1hg>
- Sebastine. (2021, December 12). Is this cultural appropriation? (PENOMECO- Bolo). *Youtube*.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AI9D3uxFzmU&t=10s>
- Sebastine. (2022, September 1). Racism. Cultural appropriation. Kpop. An honest conversation. *Youtube*.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etkVTI8_ttg&t=1343s
- Shennan, R. (2020, August 13). What is blackfishing? Meaning of the term explained as Rita Ora accused of taking advantage of fans thinking she's black. *The Scotsman*.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scotsman.com/whats-on/arts-and-entertainment/what-is-blackfishing-meaning-of-the-term-explained-as-rita-ora-accused-of-taking-advantage-of-fans-thinking-shes-black-2941481>
- Shin, M. (2016). American multiculturalism: Achievements and its prospect. *American Studies*, 39(1), 1-35. doi:10.18078/amstin.2016.39.1.001
- Sidique. (n.d.). What is your unpopular opinion about Mamamoo's Hwasa?. *Quora*. Retrieved July 19, 2023, from <https://www.quora.com/Is-Hwasa-from-Mamamoo-problematic>
- Siriyuvasak, U., & Shin, H. (2007). Asianizing K-pop: production, consumption and identification patterns among Thai youth. *Inter-Asia Cultural Studies*, 8(1), 109-136. doi:10.1080/14649370601119113
- Spinorbinmusic. (2021, May 20). Blackpink's Lisa is an Egyptian goddess in 'Pretty savage' performance on Kingdom. *Twitter*.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twitter.com/spinorbinmusic/status/1395352289141874689>
- Stevens, W. E. (2021). Blackfishing on Instagram: Influencing and the commodification of Black urban aesthetics. *Social Media+Society*, 7(3), 1-15. doi:10.1177/20563051211038236
- Strähle, J. (2018). *Fashion and music*. Singapore: Springer.
- Sweeting, T. (2021, April 1). Victory company apologizes for new boy group NTX's cultural appropriation. *Koreaboo*.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koreaboo.com/news/victory-company-apologizes-pre-debut-boy-group-ntx-cultural-appropriation/>
- The Met. (n.d.a). Evening wrap. *The Met*. Retrieved August 22, 202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82424>
- The Met. (n.d.b). Cocktail dress. *The Met*. Retrieved August 22, 2023, from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80753>
- Timesofindia. (2021, June 25). Loona's new MV teaser gets called out for Indian cultural appropriation; see fans reaction. *Times of India*.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articleshow/83836399.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 Um, H.-K. (2013). The poetics of resistance and the politics of crossing borders: Korean hip-hop and 'cultural reterritorialisation'. *Popular Music*, 32(1), 51-64. doi:10.1017/S0261143012000542
- Yang, H., & Yoon, S.-Y. (2022, July 12). Cultural appropriation and K-pop's unbalanced give and take. *Korea JoongAng Daily*.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2/07/12/entertainment/kpop/lee-gyutag-kpop-kpop-critic/20220712151433008.html>
- Yi, M., & Yim, E. (2020). Cultural appropriation and representation in the contemporary fashion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70(4), 54-64. doi:10.7233/jksc.2020.70.4.054
- Young, J. O. (2010). *Cultural appropriation and the art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Yourfaveisproblematic. (n.d.). Super Junior. *Tumblr*.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yourfaveisproblematic.tumblr.com/post/49870822647/super-junior>
- Zi, T. M. (2020, October 28). K-pop boyband NCT U angers Muslim fans after featuring Islamic shrine, text in live performance. *Malaymail*. Retrieved July 18, 2023, from <https://www.malaymail.com/news/showbiz/2020/10/28/k-pop-boyband-nct-u-angers-muslim-fans-after-featuring-islamic-shrine-text/1917120>

Cultural Appropriation in K-pop Artists' Fashion

Yu, Haemin · Chun, Jaehoon⁺

Ph. D. candidate, Dept. of Fashion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K-pop has gained popularity worldwide, becoming both the identity and voice of the contemporary youth. Fashion is closely intertwined with music and visually contributes to the creative activities of global K-pop artists. However, the issue of cultural appropriation, an act of stealing the heritage from other cultures, is being pointed out simultaneously. Given K-pop's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younger generation from various cultures, it is crucial to conduct reflective studies. This paper conducted a case study on cultural appropriation in K-pop artists' fashion based on news articles and YouTube video content. Types of objectification and methods of cultural appropriation were examined in the content analysis of news articles. First, seven types of cultural appropriation are identified through K-pop artists' fashion: typicalization and caricature of race; non-contextualization and fantasizing-romanticization of tradition; non-contextualization and fantasizing-romanticization of history; fantasizing-romanticization of religion. In each type, K-pop artists imitated and caricatured race through blackfishing or blackface, borrowed costume and hair traditions out of context, misinterpreted historical facts, and ignored religious meanings. YouTube videos are categorized into three: introduction of concepts and cases, criticism and opinion, and reaction content. YouTube creators criticized problems of cultural appropriation in K-pop artists' fashion, who posed risks such as creating stereotypes for certain races, causing racial discrimination discourses, lacking in respect for tradition, misinterpreting historical facts, reproducing exploitation of colonialism, and insulting religion. This study provided a critical perspective through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K-pop fashion and culture.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d multicultural sensitivity education, criteria development and application, and economic contributions to cultural stakeholders, as a possible way to prevent cultural appropriation, thereby aiming to enhance the contribution of the K-pop industry.

Key words : K-pop, K-pop artist, K-pop fashion, cultural appropriation, multiculturalism

